

칼럼

장기채 주필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

한국의 자살률은 2008년 이래로 OECD 회원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고 기근과 관련된 자료상의 문제로 축소 보고되었음에도 그 축소된 수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자살률도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밤새 안녕'이라더니 새삼스럽게 실감나는 시점이다. 하루 밤을 자고 눈 뜨면 12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11명의 노인이 실종된다.

무슨 미스터리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오늘 현실이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세상을 등진 노인 자살자는 4,406명, 노인 실종자는 3,989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치매노인 등 11명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가 말하듯 이쯤되면 노인

자살공화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국내 홀로 노인 가구는 2001년 58만9415가구에서 2012년에는 118만16831가구로 늘어났다.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고 배우자마저 먼저 죽고 나면 고독감을 수반에 없다.

실상가상으로 심각한 질병까지 겹치면 외로움이 극대화 될 것이다. 당사자인 노인들이 자살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식이 있더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은 깊은 고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에게 효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5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심리 상담하는 '텔레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자필로 위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쿠르트배달원이 홀로노인들을 방문해 유산균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노인들의 안전도 점검하는 '사랑의 야쿠르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본다면 그 심각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어쨌든 자살은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안전망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일본의 100세 시인 시바타 도요는 밀리언달러가 된 그녀의 첫 시집 '약해지자마'에 실린 시를 통해 노인에게 있어서 정서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나이 아흔을 넘기며 맞는 / 하루하루 /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 땀을 어루만지는 바람 /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전화 / 집까지 찾아와 주는 사람들 / 제각각 / 나에게 / 살아갈 힘을 / 선물하네.

살아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경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수준은 아일랜드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러니까 빈곤, 질병, 외로움 등 삼중고를 이기지 못한 많은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를 보면 기막히고 엄청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자살, 위암, 교통사고 사망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 지원조차 못 받는 서러운 노인들도 많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가장 절실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社說

피서철 성범죄 대응 강화해야

경찰청은 본격 피서철인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서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경찰관 534명과 의무경찰 436명 등 모두 970명이 여름 경찰관서에 투입돼 피서지 범죄 예방·대응 업무를 맡는다.

유명 휴양지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과 의무경찰 부대를 동원하는 등 순찰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자릿세 갈취, 주취폭력, 절도 등 피서지 주요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몰카(몰래카메라) 등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 여성청소년 수사·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해 피서지 성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피서지 내 탈의실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탐지장

비를 활용해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벽면·천장 구멍 등 몰카 설치 흔적이거나 선정적 낙서 등이 발견되면 시설주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한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추진하고, 성범죄 신고 보상 제도를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울러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 피서지 주변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한 뒤 방법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매년 이맘때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노숙의 계절인 여름철이다 보니 이를 노리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몰카 등을 설치하는 등의 성범죄가 성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단속을 강화해 신랄한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都 邑 華 夏

도 邑 華 夏

都 邑 華 夏

▷ 뜻: 도읍(都邑)은 왕성(王城)의 지위(地位)를 말한 것이고, 화하(華夏)는 당시(當時) 중국(中國)을 지칭(指稱)하던 말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부탄가스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나들이와 캠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소한 부주의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가스사고 651건 중 휴대용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로 발생한 사고만 124건으로 전체사고의 약 19%나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12건이 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 행락지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행락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안전한 사용요령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부탄 캔을 휴대용가스레인지에 가까이 두면 안되겠다.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열기에 의해 부탄 캔이 과열이 되고 부탄 캔의 내부압력상승을 유발하여 부탄 캔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리기구는 휴대용가스레

인지의 삼발이보다 큰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리기구의 바닥면적이 부탄 캔 장착부위를 덮게 되면 부탄 캔에 복사열이 전달되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용가스레인지 2대를 나란히 붙여서 사용하거나 조리기구(프라이팬, 그릴, 대형틀판, 알루미늄 포일)를 감은 석쇠 등 휴대용가스레인지 삼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하면 안된다.

셋째, 텐트나 천막, 자동차 등 좁은 공간 안에서 부탄 캔을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부탄 캔이 손

상되거나 부주의로 가스누출 시 한 순간의 직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부탄 캔을 보관할 경우에는 휴대용가스레인지에서 꺼내어 보호뚜껑을 씌워서 따로 보관해야 하고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 쓴 부탄캔은 고철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하며, 쓰레기 소각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멍을 내어 잔 가스를 모두 배출시킨 후 버려야 한다.

박영남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r comments) with contact info and a note that external comments are not necessarily published.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two women and a message about mutual respect and empathy.